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소통의 한마당이 되기를

박 형 규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는 경제성장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기나긴 가난의 역사를 뚫고, 온 민족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터전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주화운동은 바로 그러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움트고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독재권력과 재벌의 결합 그리고 외세의 개입 및 분단이라는 환경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경제적 모순과 노동자 및 서민의 희생을 배태하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 정치의식이 점차 성숙해 가면서 국민의 힘이 다양한 민주화운동으로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화운동의 정점이 87년 6월 항쟁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소수의 선각자와 지식인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한 대중의 힘이 항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떠올리는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역사에서 모처럼 대중운동의 지평이 역동적으로 부활한 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웠던 연대의 열정과 분출하는 대중의 힘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화합과 결속의 소중한 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상기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기념사업회의 소명이 지나간 한국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기념'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기념'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 기념사업회는 자랑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자랑할 만한 미래의 전망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이중적 '기념' 사업의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전 인류가 합심해서 추구해야 할 지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칠 줄 모르는 운동을 통해서 쟁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의 땀과 피를 요구해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제한된 목표의 실현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다방면에서 자유와 평등의 온전한 실현과 보편적 인권의 확립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쟁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숨가쁜 운동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현재 한국의 현실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 속에서 희망과 동시에 절망을 봅니다. 기억에도 새로운 '붉은 악마' 가 보여준 뜨거운 결속력이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던 반면, 국민의 정치의식은 아직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파벌의식 등으로 분열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서서히 개선되는 징후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곳곳에서 구시대적인 인권유린과 탄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등 한국의 경제구조가 과거보다 점차 '합리화' 되어 가고 있는 이면에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간 대화와 스포츠 및 문화 부문 등에서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지속된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절망,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쉽게 낙관할 수도 그리고 또 쉽게 비관할 수도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희망의 싹을 미래지향적으로 굳세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업이 현 시대의 징표요,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쉽게 희망하거나 절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격동의 시대에,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꾸준한 지속과 발전이라는



과제의 실현이 더욱 더 소중한 역사적 요청으로 부각되는 바로 이 시기에,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연구소 주관으로 대중적 학술 계간지 『기억과 전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계간지의 제호가 저희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사명을 적절히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은 학술 공간이 민주주의, 민중의 삶, 그리고 민족의 발전과 평화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이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그 성과를 정당히 복원·평가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민주주의 상을 함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열려진 마당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격의 없이 교환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논의를 위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되어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대를 자극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대중적 학술 계간지 『기억과 전망』에 뜨거운 관심을 지니고 애정 어린 채찍으로 잘 이끌어주시길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운동의 단계 높임을 위하여

강 만 길 _ 상지대학교 총장

돌이켜 보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대학 캠퍼스는 매일같이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고 교정은심심찮게 군인들의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말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 새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두어지고 계간지까지 나오게 되어 축하의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라는 것은 결국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 만다는 진리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의 투쟁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오게 했고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기념사업이란 결코 지난 일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살아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데만 한정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는 데 그 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것에 못지 않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가 같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로 오면서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의 결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전진했다고 하겠지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는 아직 제 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문민정권 아래서 닥친 이른바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신자유주의적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되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것에 따라 사회적 민주주의도 허점 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0년간의 군사독재 시대에 뿌리내린 군사문화적 요소가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파고든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의식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해서 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저절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의식과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계간지도 우리 민주주의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는 마당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기념사업의 차원을 넘어 민주화운동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 만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같지는 않다 해도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멈추게 하거나, 나쁘게는 뒷걸음치게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이런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대체로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다가오는 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가 앞으로 민주주의 노선과 반민주주의 노선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투철한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는 또 하나의 깃발이 될 것을 믿으며 축하의 인사를 줄입니다. ■